

김혜수 17일 방송 '남만닥터 김사부' 변외편 특별출연  
배우 김혜수가 17일 방송하는 SBS 월화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 변외편에 특별출연한다. 16일 20회로 종영하는 드라마는 현재 이야기가 극적으로 치달고 있는 상황이며 서 김혜수의 캐릭터 등은 비밀로 부쳐졌다.



김원경의 **음담잡담**

## 왜곡된 실시간차트 없애고 장르별로 선택폭을 넓히자

음악사이트의 실시간 차트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가요계 여기저기서 나온다. 대중의 소비 취향이나 음악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지도 못할 뿐더러 팬덤의 크기로 순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어느 음악사이트를 보더라도 아이돌 스타나 인기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노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돌 팬들끼리 서로 상대방 가수의 노래를 스트리밍하며 '상부상조'한다. 사실상 순위 왜곡이다.

실시간 차트 100위권에 한 번 자리 잡은 곡은 순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팬들이 '의무감'에 스트리밍하고, 일반 이용자는 차트에 오른 100곡을 '전체듣기'로 설정해 배경음악처럼 흘려듣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곡이 새로 나왔는지 알기 어렵고, 순위권 노래를 '인기곡' '좋은 노래'로 인식한다. 팬덤이 없는 가수, 경력이 많은 가수는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다. 순위에 한 번 오르면 '순항'하는 현상 탓에 사재기가 시도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시간 차트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기는커녕 공급이 소비를 좌우하는 형국이 됐다.

소수 팬덤에 좌우되는 실시간 차트는 장르의 다변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르별 차트를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그나마 능동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빌보드 핫100처럼 실질적으로 다양한 대중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차트가 필요하다. 음원 소비, 라디오 방송 횟수, SNS 언급량 등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순위를 매긴다면 음악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권위의 차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음악사이트의 불합리한 제도로 꼽혔던 '추천제'는 멜론을 제외하고 모든 음악사이트가 2015년 폐지했다. 당시 이를 주도했던 안석준 전 CJ E&M 음악사업 부문 대표는 실시간 차트 폐지도 주장했다. 누군가 다시 나서야 한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gymmy@donga.com

## 연예뉴스 스테이션

### 이태곤 폭행 남성은 중소기업 대표 2세

연기자 이태곤(40)을 폭행한 남성 A씨가 중소기업 대표 2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 온라인 매체는 "A씨는 사료재를 수출하는 한 기업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고 보도했다. 7일 오전 1시께 이태곤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치킨 가게에서 만취 상태의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 등을 맞았다.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 곽현화 '노출장면 유료배포 무죄판결' 하소연

개그우먼 곽현화가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동의 없이 유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연출자를 법원이 무죄 판결한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곽현화는 11일 SNS에 해당 연출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되지 못했고, 녹취록 역시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표했다. 곽현화는 2012년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가슴 노출 장면을 편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출자가 '감독관' 등의 이름으로 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료로 유통했다며 2014년 4월 고소했다.

## 책 랭킹

자료:교보문고  
12월 28일~1월 3일

1위 책  
정보보기



| 순위 | 제목                         | 작가       |
|----|----------------------------|----------|
| 1  |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김용택 (역음) |          |
| 2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 설민석      |
| 3  | 자존감 수업                     | 윤종훈      |
| 4  | 트렌드 코리아 2017               | 김난도      |
| 5  | 브루클린의 소녀                   | 기욤 뫼리    |
| 6  | 그릿(Grit)                   | 앤절라 데크루스 |
| 7  |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2부 J.K. 롤링   |          |
| 8  | 완벽한 공부법                    | 고영성      |
| 9  | 그럴 때 으시시조?                 | 김제동      |
| 10 | 노르웨이의 숲                    | 무라카미 하루키 |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 가리온 “우리말 랩은 고집이자 확신이 됐어요”

## MC메타+나찰=힙합듀오 ‘가리온’

1997년 2인조 결성 ‘한국형 힙합의 대부’ ‘퇴진 영순위’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 등 사회성 짙은 음악 추구...올봄 3집 출시

한국 힙합의 토대를 닦은 가리온(MC메타·나찰)은 ‘한국 힙합의 대부’로 추앙 받지만, 대중에선 아직 낯설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집회를 통해 비로소 회자됐다. 작년 11월19일 4차 촛불집회에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퇴진 영순위’로 공연하며 반향을 일으켰다.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 엔딩곡으로 삽입된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로도 주목받았다. 가리온에게 시국의 노래와 촛불집회 무대는 ‘힙합의 사명감’도, ‘정치적 소신’도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래퍼로서 소리를 내

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다.”

가리온은 이전에도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2012년 5월 MBC 노조 파업 100일 행사, 같은 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추모 행사 등에도 나섰다. 2011년 일본 대지진 피해가 심각했던 조선학교를 돕는 비영리기구 ‘몽당연필’ 기금 마련 공연도 했다.

“태생적으로 무게 있는 주제를 좋아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음악은 대중성과 거리가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목직한’ 길을 걸어왔다. 힙합이 생소했던 1997년 결성해 국내 힙합의 터를 닦은 두 사람은 ‘한국형 힙합’의 정착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팀 이름부터 ‘검은 갈기의 백마’라는 우리말이고, 노래엔 영어가 한 마디도 들어있지 않다. 추임새로 쓰이는 ‘요~’ 같은 말조차 쓰지 않는다.

“힙합은 자기표현이다. 한국인에게 자기표현의 가장 자연스런 언어는 한국어다. 우리말로 우리 생각을 어필하자 생각하면서 우리말 랩을 고집했고 확신이 됐다.”

1990년대 댄스음악에 랩이 양념처럼 쓰이고, 노랫말도 영어권 래퍼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힙합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자” “예술로 인정받겠다”는 다짐도 커졌다. 자연스럽게 사랑노래보다는 “깊은 내면의 노래”에 천착했다. MC메타는 대형 병원의 주치요원, 클럽 매니저, 막노동 등으로 살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중성을 좇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려 노력했다. 생활이 지옥같이 힘들었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나가 음악이 미워지지 않았다. 굶어죽더라도 우리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가리온은 올해 봄 3집을 낸다. 결성 20주년에 3번째 정규앨범이라니, 작품수가 너무 적다. 공연을 하면서 신곡을 내고, 이를 모아 앨범을 내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경력에 비해 디스코그래피가 적다.

“각자 먹고사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러면서 곡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또 우리 생각과 철학을 담으려면 큰 바위를 깎아내듯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 ? 가리온

▲MC메타(이재현·46), 나찰(정현일·40)의 2인조 ▲H.O.T가 데뷔한 1997년 PC통신 하이텔의 힙합동아리 ‘검은소리’에서 만남 ▲1998년 1월부터 팀 활동 시작 ▲2004년 1집, 2005년 싱글 ‘무투’, ‘그날 이후’, 2010년 2집 발표 ▲MC메타는 현재 실용음악학원 랩 트레이너, 나찰은 국제예술대 힙합과 교수

가리온 탄생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힙합은 주류가 됐다. 스타 래퍼도 많다. 가리온은 “앞으로 한국 힙합은 다양성이 확대될 것 같다”고 낙관했다.

이들은 “우리는 못할 줄 알았던 결혼도 했다”면서 “고희(古稀, 70살) 힙합이 꿈”이라고 했다.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고 싶다. 우리말 가사도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 영어를 쓴다면, 이는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절대 콘셉트가 아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올해 결성 20주년을 맞은 가리온의 MC메타(왼쪽)와 나찰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왔기에 배고픈 날도 행복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티스트라면 자신의 예술세계를 보여줘야 함에도 요즘 래퍼들은 엔터테인먼트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 광희, 다음달 군대간다

임영남씨는 미정...늦어도 2월에 입대  
‘무한도전’ 멤버 보강·5인 체제 갈릴길

그들 제국의아이들의 멤버 광희(황광희·29)가 2월 안에 입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가 고정으로 출연 중인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멤버 공백도 불가피해졌다.

11일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광희는 현재 임영남씨를 기다리고 있다. 늦어도 2월 이내엔 입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1월 입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임영 대기자들이 많아 다소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희는 입대일이 지정될 때까지 대기 상태다.

이와 관련해 광희 측은 ‘무한도전’ 제작진에게 입대와 관련한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월 입대 계획에 맞춰 이미 지난해 연말 ‘무한도전’을 제외한 다른 일정을 모두 정리하고 조용히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광희는 2015년 4월 ‘식스맨 프로젝트’를 통해 ‘무한도전’의 여섯 번째 멤버로 최종 합류했다. 최근 그의 활약이 이전보다 눈에 띄면서 시청자의 응원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여러 차례 방송에서 군 입대가 임박했음을 예고해 뒤늦은 활약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7일 방송에서는 “2017년 연병장 길을 걷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광희

‘레전드’ 편과 파일럿프로그램 ‘가출선진 사십춘기’로 대체한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의 기획 및 연출 등을 총괄하는 김태호 PD는 11일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기획의도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송은 없지만 제작진과 출연진은 이전처럼 이 팀 기획 및 회의 등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기간 제작진이 숨을 고르며 광희를 대체할 멤버를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 하정우·오달수 브로맨스 “한번 더”

영화 ‘서울’ 투톱 주연으로 캐스팅  
‘암살’ ‘터널’ 등 네번째 동반출연

배우 하정우와 오달수가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3연타 브로맨스를 이어간다.

하정우와 오달수가 영화 ‘서울’의 투톱 주연을 맡기로 뜻을 모으고, 현재 제작진과 세부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 촬영할 계획이지만 일찌감치 두 배우와 출연을 타진하면서 영화계에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서울’은 1988년 열린 서울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이야기다.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공무원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실화를 바탕으로 삼는다. 제작진은 1981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확정짓는 바덴바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모습 등을 담기 위해 독일 로케이션 준비하고 있다.

하정우는 ‘서울’의 시나리오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 역시 처음부터 주인공 공무원을 연기할 배우로 하정우와 오달수를 1순위로 떠올렸던 만큼 이들의 적극적인 만남이 발휘할 시너지도 상당할 전망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11일 “촬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며 “가장 캐스팅하기 어려운 배우로 통하는 하정우와 오달수의 만남 가능성이 작품에 대



하정우(왼쪽)와 오달수가 2015년 영화 ‘암살’에 출연했을 당시 모습. 사진제공 | 케이퍼필름

한 기대치까지 끌어 올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정우와 오달수는 합작한 영화의 흥행을 이끈 환상의 파트너로 통한다. 첫 만남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로 127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터널’로 712만 관객을 모으기도 했다. 하정우가 주연을 맡고 오달수가 짧게 참여한 ‘신과 함께’까지 합하면 합작 횟수는 4편으로 늘어났다.

물론 영화계를 대표하는 다작 행보의 배우들인 만큼 ‘서울’ 촬영 전 내용을 작품도 여러 편이다. 하정우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담은 ‘1987’ 촬영을 앞둔 상황. 이후 ‘더 테러 라이브’를 함께 한 김병우 감독의 신작 ‘PMC’ 촬영을 마친 뒤 ‘서울’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달수 역시 박해일과 함께 한 스릴러 ‘컨트롤’ 촬영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